

데스크 시각

축제가 끝난 뒤



김미은 문화1부장

얼마 전 광주극장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영화제가 열렸다. 8편의 상영작 중 ‘동장희’와 ‘호텔’ 같은 작품은 독특한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새로운 개최도시를 물색하다 이번에 광주를 점찍었다 한다. 개막식 날은 가을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지만 500여 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영화 ‘호텔’을 보러 간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은 ‘임부러’ 개막식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도 이 좋은 행사가 꼭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대사관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개막식에도 일부러 얼굴을 내밀고, 이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유해 함께 영화를 본다고 했다. 5일 동안 다녀간 관객은 2500여 명이었다. 영화제를 준비한 건 대사관과 광주극장이었지만 영화제의 주인은 좋은 영화를 지속적으로 즐기고 싶어 하는 관객, 바로 그들이었다.

올 가을 광주에선 술한 행사들이 열렸다. 이런저런 축제를 접하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관객** 우선 간의 총장축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총장축제가말로 관객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전엔 총장축제에 관한 한 나는 ‘골수 비판론자’에 가까웠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가, 도심 한복판을 5일씩 통제하고 축제를 열 수 있었는가. 이런 전체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광주를 대표한다는 축제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비판 기사와 칼럼도 여러 번 썼었다. 이번 축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즐거워 보였다.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걷는 이들도 많았다. 젊은이들만 ‘룩페’에서 방방 뛰는 게 아니었다. 트로트를 따라부르고 점핑하며 즐기는 50~60대 아줌마·아저씨들의 신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물론 지금도 못내 아쉽기는 하다. 개선점도 여전히 눈에 띈다. 다행히 문화전당 쪽에 판을 벌였던, 상대적으로 ‘젊은 공간’들이 위안이 됐다. 이미 대세가 되어 버린 흐름은 유지하되, 축제 현장 곳곳에 개성을 살린 ‘또 다른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듯하다.

개인적으로 ‘굿모닝 양림’이 가장 좋았고, 가장 아쉽기도 했다. ‘굿모닝 양림’은 술과 음식이 없는 축제를 지향하며 인문학적 풍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색다른 시도였다. 하지만 행사 피날레 역시 다른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가수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물론 콘서트가 가장 많은 이들을 끌어모은 프로그램이긴 했다. 하지만 하나쯤은 봉어빵 같은 술한 축제와 다른 모습의 행사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었다. 가장 우 가옥, 최승호 가옥, 사직공원의 울창한 숲, 선교사 사택, 한화원미술관 등 차별화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양림동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동네 사람 심청이 키우듯

실망스러운 행사들도 있었다. 금남로에 크게 판을 벌였지만 정체성도 흥미도 찾을 수 없었던 광주세계아리랑축제는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년 연속 공연된 ‘빛골아리랑’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였다. 광주예총이 광주천변에서 개최한 광주아트페스티벌은 ‘천인공노(千人共勞)’라는 ‘요상한’ 주제어만큼이나 안타까웠다. 광주 예술인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행사인데, 오히려 축제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차라리 실내 행사로 돌려 내실 있

게 운영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관객들이 ‘내가 주인이 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행사들이었다. 며칠 전 광주시립국극단의 ‘홍보가’를 봤다. 이렇게 안절부절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건 또 처음인 듯했다. 예술감독 퇴진을 둘러싼 갈등, 연습 태업과 관련한 다발 캐스팅, 고소·고발 등 복잡한 배경을 알고 있는 터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작품을 지켜보아야 했다. 역시 이날 공연은 아쉬움이 많았다. 관객도 그리 많지 않았고, 일부 출연진의 실력은 보기에 난감했다. 하지만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관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공연을 관람하는 주인공들의 기쁨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25일 정식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전당 공사가 한창일 때 누군가 물었다. “전당이 어찌 돼 갈 것 같나요?” “잘 돼야 할 텐데, 애정을 갖고 전당을 보는 이들이 별로 없네요.” “문제가 있기는 하겠조. 하지만 완공되면 동네 사람들이 심청이 쫓 물러서 키웠듯, 우리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다 같이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전당도, 축제도, 시립예술단도 우리가 주인이 돼 함께 키우고 즐기는 것, 그게 필요하다. 물론 그 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멋진 판을 만드는 건 그들의 역할일 테고. /mekim@kwangju.co.kr

社說

행정기관 공문서 그리 쉽게 폐기했다니

전남도 등 행정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80%가 5년 뒤면 사라진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과거 이들 기관들의 사업이나 정책, 이를 추진한 결과 등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에 만들어진 기록물은 비전자 문서 1만3603건, 카드 1권, 도면 256건 등 1만3860건, 전자 문서 284만1998건 등이다. 행정기관에 과거 기록을 요청하면 폐기됐다는 답변이 정해져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문제는 10년 이상 보관되는 문서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5년 이내에 문서 목록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비전자 문서 중 보존 연한 5년 이하인 문서가 83.66%, 전자 문서의 경우 82.42%에 달했다. 따라서 3년 뒤에는 F1대회와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이나 추진 일정 등의 중요 서류를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직기강 감찰 처리 결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도 5년 뒤

면 사라진다. 다행히 전남도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014년 기록관리 기준표를 만들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기록관리 연구사를 채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3년까지는 사실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존 연한을 정해 보존 또는 폐기하면서 공문서의 상당수가 이미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기관에 과거 기록을 요청하면 폐기됐다는 답변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한다. 현재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비전자 문서 중 보존 연한 5년 이하인 문서가 83.66%, 전자 문서의 경우 82.42%에 달했다. 따라서 3년 뒤에는 F1대회와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이나 추진 일정 등의 중요 서류를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직기강 감찰 처리 결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도 5년 뒤

화순적벽 누구나 고루 구경할 수 있도록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 이서적벽 구경이 어렵다니 까닭이 있었다. 일부 여행자들이 사전 예약제인 적벽 관람 신청을 무더기로 접수했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행사가 과거 항공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관행과 비슷하긴 하지만 도가 지나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의의 관람객을 제한한 꼴이 되고 말았다. 화순군은 지난 42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됐던 적벽을 지난 3월부터 개방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매주 수·토·일요일에만 하루 3차례 사전 예약한 384명에 한해 입장시키고 있다. 관람일 2주 전부터 균등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회에 10명까지 동반 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일인자 접수 시작 5~10분 만에 통나는 일이 잦아 항의가 빚발쳤다. 화순군이 파악해 봤더니 올 한 해 적벽 유람객 2만8780명 가운데 40%가량은 여행사를 통한 사전 예약객으로

분석되면서 경위가 드러났다. 서울·부산 등지의 여행자들이 자사 상품에 화순 적벽투어 코스를 끼워 팔기 위해 적벽 입장 허용 인원의 50~60%를 예약해 선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적벽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 문화에 취약한 중장년층이라는 것도 여행사의 예약 선점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행자들이 자사 상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약을 취소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순수 관람객들은 그만큼 적벽의 운치를 감상할 기회를 포기해야 했다. 예약제의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여행사가 지나치게 영리행위에만 치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뒤늦게 화순군이 시스템 정비가 나섰더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예약 신청을 할 경우 예약 인원을 크게 제한하는 등 순수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끈대와 멘토



이병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교수

영화 ‘인턴’이 한국에서 빅 히트를 친 이유는 무엇보다 인턴이라는 직종에 대한 애환과 훌륭한 멘토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턴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인생 이모작을 시작해야 하는 시니어에게도 사연이 많은 용어이다. 이 영화는 시니어 인턴을 생각하는 ‘끈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판치는 낯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부사장까지 지낸, 연륜과 경륜을 겸비한 70세 노인이 “난 그저 내 삶에 난 구멍

을 채우고 싶어요”라며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다. 열정 많은 30세 여 사장이 버티고 있는 회사에 입사해 시중 일관 차분하고 예의바르게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끈대가 아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는 영화다. 눈여겨 볼 점은 잘 알고 있는 것도 먼저 충고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면 간결하게 거들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한다. 부사장까지 지냈지만 인턴 사원으로서 본분을 잘 지킨다. 하찮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은 늘 성실하게 처리를 한다. 덧붙여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한다. 억지로 젊은 스타일을 흉내 내려 애쓰지 않는다. 자신이 근무했던 방식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자신을 적절하게 포지셔닝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끈대와 멘토는 조그만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중에 떠도는 ‘끈대와 멘토’에 관한 유머 한 토막이 그 차이를 잘 보

여준다. 둘 다 충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멘토는 나이 요령하면 충고를 해주지만 끈대는 자기 마음대로 충고를 한다. 둘째, 멘토는 미래를 말하지만 끈대는 과거만 떠벌린다. 셋째, 멘토는 자신의 실패 사례도 소개하지만 끈대는 “내가 왕년에는~”이라며 자신의 성공 신화만을 말한다. ‘끈대’의 어원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요즘은 어른이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과 비합리적인 독설만 늘어놓는 어른들을 가리켜 ‘끈대’라고 부른다. 때로는 젊은 사람이라고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끈대’라고 부른다. 또 끈대짓을 하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끈대리즘’이라고도 표현한다. 끈대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을 멘토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문정희의 시 ‘말 많은 노학자’는 끈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오래만에 산에서 내려온 노학자는/땀을 땀에 걸린 것 같다/나

이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라고 하던데/그는 끝도 없이 입만 열었다/이는 것이 많으니 할 말도 많다’ 60대를 훨씬 넘긴 나이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있는 한 선배는 이런 얘기를 한다. 최근 6개월 내에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오래된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끈대는 소리를 듣기 싫상이고, 나이 들어 끈대가 되기 싫다면 늘어놓는 어른들을 가리켜 ‘끈대’라고 부른다. 때로는 젊은 사람이라고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끈대’라고 부른다. 또 끈대짓을 하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끈대리즘’이라고도 표현한다. 학교에 ‘멘토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학생이 꽤 있다. 사실 ‘멘토’ 역할 할 수 있게 해주니가 말이다. 대학에 있는 즐거움이기도 한다. 사실 ‘멘토’는 못되더라도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늘 걱정스럽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할 말이 많다고, 멘토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기 고

노을여울



김진우 우산중 교감

수능 시험이 끝난 밤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시험을 잘 봤다는 수험생 아빠의 밝은 목소리다. 이러저러 일로 심신이 조금 지쳐있는데 바로 반전이였다. 선생님의 격려를 잊을 수 없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아빠와 함께 전한다는 고3 제자. 1년 반 동안 생활했던 지난 일들이 눈에 선했다. 사실 격려와 칭찬을 해줬지만 별것이 아니었다. 간혹 기숙사 1층 통로에서 만나면 글을 계속 쓰느냐고 물었고, 작가를 소개해 준 것 뿐인데 공부까지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니 내 꿈이 실현된 듯 기쁘다. “아직은 뿌연게 먼지가 앉은 아스팔트 길. 아직도 여름은 죽지 않았다고 발악이

라도 하듯 내리쬐는 햇빛이 불쾌지수를 한껏 높였다. 체력적으로 힘들다가보다는 잠을 수 없는 더위가 미웠고, 경치보다는 빨갛게 익은 팔뚝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주변 사람들의 불평에 나까지 신경이 곤두서고. 버럭 신경질을 내리다 그냥 몰 한 모금 별컥 들이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던 초반,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보상을 받았다. 겨우 30분쯤 올라갔을까.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는 하늘빛으로 잔뜩 물이 들어 있었다. 방금 저 하늘에 폭 담궜던 것처럼.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무겁고 귀찮아 수 십 번 고민하다가 대충 가방에 쑤서 넣었던 카메라는, 그 후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도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래,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자. 이 느긋한 가을 산행 외중에도 도시인의 승성을 버리지 못해 급한 성질 자랑이나 한다며, 난 영영 자연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내려올 땐 금방이라도 죽을 듯 아팠던 다리도 이제는 벌써 추억으로 느껴지고. 가끔은 맨 발로 흙을 밟아보다도 좋다.” 이 글은 전화한 학생이 예고 1학년 때 쓴 것이다. 학교 기행문집에 실린 때수제

한 의 짧은 글이다. 사물을 받아들이는 예민한 흡수 감각과 대단한 근육질의 힘 있는 문장에 나는 반했다.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30여 년 전에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는 첫눈이 오면 수업을 중단하고 뒷산으로 토끼몰이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교육행사는 내 마음 속 한 칸에 남아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고에 근무할 때 몸도 마음도 강한 여고생을 만들고 싶었다. 이 두 생각이 어울려져 기획한 프로그램이 S여고의 ‘역세 핀 가을, 무등산 중추 등반’이다. 17 km 하루 내내 걷는 것이다. 1학년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400여명이 산장에 모여 관리도로를 따라 중봉 갈밭을 지나 서서대 입석대 찍고, 장봉재 등성에서 점심 후, 규봉암 너털경 두루 거치고, 신선대 꼬막재를 저녁 노을과 함께 내려오는 코스다. 뒷산 언덕도 가기 싫어하는 여고생이 7~8시간을 걷고 걷는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 사진콘테스트도 하고 참가한 모든 학생의 글을 받아 문집도 만든다. 이런 교육활동 속에서 예비 작가와 만난 것이다.

소설가 신경숙이 생각났다. 영등포여고 야간 산업체특별학급에 다니던 신경숙은 어느 날 같이 교실을 쓰는 주간생에게 체육복 도둑 누명을 쓰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 결국 일주일 만에 담임선생님이 찾아와 ‘우선 학교에 나와 얘기하자며,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오라’고 한다. 신경숙은 대학노트 삼분의 일 분량으로 반성문을 써서 담임선생님께 드렸다. “너 소설을 써보는 게 어땠겠느냐?” 반성문을 읽은 담임선생님의 첫 마디. 그리고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라며 ‘난장이가 쓰여올린 잘 쓴 공’을 주었다. 신경숙이 소설가가 된 과정으로 ‘외판방’에 나온다. ‘외판방’을 담임선생님이셨던 최홍이 선생님께 바친다. 제목 노을여울은 전화한 제자의 이름이다. 음운의 흐름도 좋고, 여울에 비친 노을인지 노을에 물든 여울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편안한가. 이제 몇 년이 지나 이 이름이 작가로 다시 탄생해서 고달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은 힘들어도 힘나는 일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